

방과후활동 온라인 화상 수업으로

전주영체, 대상자 64명 선정 ZOOM프로그램 활용 원어민 교사 1명당 8명씩... 쌍방향 원격 수업 대체

전주영어체험학습센터(원장 이영숙, 이하 전주영체)는 해마다 진행해오던 대면 수업형식의 방과후활동을 ZOOM 프로그램을 활용한 쌍방향 수업(사진)의 형태로 대체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주영체는 지난 9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아 희망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최종 선정된 64명의 학생들을 원어민 교사 1명당 8명씩 소그룹으로 배치해 쌍방향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지난 5일 한국인 교사들과의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본 수업은 10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1주일에 4회, 총 10주간 실시할 예정이다. 방과후 온라인 화상수업에 활용될 교재는 총 2권으로 원어민 교사들이 직접 선정했으며 대상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배부됐다. 특히 온라인 수업의 특성을 반영해 교재 내용 외에도 주제와 연계된 파워포인트 제작 및 다양한 동영상 사진 자료를 활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주영체 온라인 화상 방과후 활동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이 대면식 교육을 통해 영어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는 상황에서, 교사와 학생이 서로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고 다양한 상호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온라인 쌍방향 수업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영숙 원장은 "코로나19 시대에 학생들이 온라인 화상 방과후활동을 통해 원어민 선생님들과 온라인상에서 직접 소통하며 즐겁고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기자



잼버리 JB 국가대표 72명 전북 문화 감수성 키운다

24일 도내 일원 '내 손안에 잼버리' 야외 체험

잼버리 JB 국가대표가 10월 과정 활동으로 '내 손안에 잼버리' 전북 문화체험에 나선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4일 김제, 군산 등 도내 일원에서 잼버리 JB 국가대표 72명과 함께 10월 과정 활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체험은 한 보와 반을 한 팀으로 총 4팀을 구성해 소규모 체험활동으로 도내 14개 시군의 한국적인 문화와 체험 지원을 활용에 문화감수성을 키우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대원 간의 체험, 경험 공유로 유대감 향상 및 잼버리 대원으로 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각 보·반별로 강천산 힐링 트레킹과 슬로푸드 체험, 고인돌박물관과 운곡관사르습지 탐방, 벽골

제 전시관과 농경문화체험, 근대역사박물관과 금강철새조망대 투어 등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하고 주변 환경정화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대원들이 전북문화체험을 통해 스카우트 대원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다양한 잼버리 홍보 활동으로 잼버리 참여 대원 증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관련 지역 홍보에 대한 관심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잼버리 JB 국가대표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해 도교육청에서 선발한 홍보대사로 초등 6학년부터 고3까지 총 72명으로 구성됐다. /정은성기자

제14회 도서관 문화축전 전북교육문화회관, 17~18일

전북교육문화회관은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 간 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참여하는 2020년도 '제14회 도서관 문화축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서관 문화축전은 '마음북북'을 찾는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주요 행사로는 비대면 참여형의 '드라이브 스루 북퀴즈' 및 '북(Book)테라피 존'을 마련해 나(자아), 관계, 정서, 인지의 4개 영역의 주제별로 책을 통한 마음 힐링의 체험, 사서가 선정한 마음의 힘이 생기는 시 한편 처방 독서심리상담전문가 민경애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과 함께 마음약방 상담 및 임상관 경기대 교수의 독서치료 특강 등이 진행된다.

또한 제1전시실에서는 도교육청 소속 18개 도서관에서 공모한 '집콕! 독서사건'과 '우리집 서재'를 소개한다. 전시회 등을 운영한다.

고광휘 관장은 "전북교육가족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던 도서관 문화축전이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로 진행되지만,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회관 누리집(<https://lib.je.gok.kr/jc>)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접수를 통해 이뤄진다. 문의는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 독서교육과 063-270-1692로 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14일 하림산업에 취업할 20명의 학생들에게 1억원 적금 통장 전달식과 아울러 취업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전주비전대, 하림 취업자들에 1억원 적금통장 전달

전주비전대학교(총장 홍순직)는 지난 14일 하림산업에 취업할 20명의 학생들에게 1억원 적금 통장 전달식과 아울러 취업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하림산업에서 시행된 현장견학과 1억원 적금통장 전달식은 홍순직 총장을 비롯한 하림그룹에 합격한 전주비전대 학생 20명과 이주원 학생회장, 박찬열 취업지원처장, 조숙진 대외협력센터장, 김혜미이주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하림그룹 홍보동영상 시청, 1공장 생산라인 견학 및 직무소

개와 1억원 적금통장 전달식 순으로 진행됐다. 홍순직 총장은 "취업전쟁에서 성공한 졸업생들도 본격적인 무한경쟁 속에서 용기를 잃지 않고 임원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통장을 개설하고, 1억원 통장을 다 채울 때까지 이직하지 말라는 의미임을 늘 기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교는 취업에 성공한 졸업생들에게 1억원짜리 통장을 개설해주고 있다. /정은성 기자

그림책 미로 체험 행사 군산교육문화회관, 한 달간

군산교육문화회관(관장 김경미)은 어린이를 위한 '내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정하섭 글, 천은실 그림)' 그림책 미로 체험 행사를 10월 한 달 동안 1층 로비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알 듯 모를 듯한 아이들의 마음을 서정적인 글과 따뜻한 이미지로 녹여낸 그림책을 선정해 대형 미로로 제작했다. 행사는 오는 31일까지며, 어린이부터 학부모까지 누구나 사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군산부설초, '긍정의 힘, 진로교육' 특강

류지득 전 익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강사 초청... 6학년 대상

전주교육대학교 군산부설초등학교(교장 김왕규)에서 주최한 2020학년도 진로특강이 지난 13일 팔마누리관에서 진행됐다. 이날 진로특강은 6학년 70여 명을 대상으로 류지득 전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강사로 초청해 '긍정의 힘, 진로교육'이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류지득 전 교육장은 "적성을 진로로 만들기 위해 학생들이 갖춰야 할 가치관들에 대해 완벽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믿고 긍정의 마음가짐으로 임하다

보면 몇 배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학생 스스로가 자기탐색을 통해 남을 탓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신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왕규 교장은 "이번 진로특강을 통해 학생들이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며 변화시키느냐가 가장 중요하며 "언제 어디서든 영향력을 펼치는 인재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여 코로나19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축! 전주매일 창간

**외부접촉
줄이기**

**재택근무
온라인근무**

**실내공간
모임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및 타인과의 만남자제)
2m이상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면 1339

의화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